

 전주만성초	학부모 · 학생 · 교사 교권보호교육	영역	교무기획부 교권보호위원회
		연수일	2020. 3. .
		연수자	교사 권민정

학부모

제1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는 매년 2,5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주를 이루었으나,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도 2013년 69건에서 2018년 21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0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의 변천 과정

교원의 교육활동은 교원지위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관련 규정이 교원지위법에 제정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현행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보호 규정은 대응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률

舊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2016. 2. 3. 법률 제13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규정 부존재

대통령령

舊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도 교육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규정됨.

舊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3936호, 2016. 2. 3. 공포, 8.4. 시행)

- 교육활동 중에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침해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제명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舊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18호, 2016. 8. 2. 공포, 8.4. 시행)

-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구체적 유형 및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제명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309호, 2019. 10. 17. 시행)

- 침해학생에 대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 퇴학 등을 포함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 치료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강화함.
-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조연 등 보호조치의 근거를 강화함.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19호, 2019. 10. 17. 시행)

-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학부모

제2부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0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입니다. 실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부분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나 법은 침해행위자를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활동 보호 규정은 주로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외의 자, 즉, 학교관리자, 교육행정기관, 동료교원, 지역주민, 언론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0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객체

교육활동 중인 교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규정은 교원의 신분 자체를 보호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활동과 무관하게 이뤄진 교원에 대한 위법행위에는 교원지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03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제2조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04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

☒ 폭행·상해(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1) 개념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고, 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며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신체의 안전성을 해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원의 신체를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잡아서 흔드는 경우
- 큰소리로 폭언을 하여 피해교원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우울병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한 경우

☒ 협박(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1) 개념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뜻하며,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피해가 예측되어야 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위험한 물건을 교원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위협한 경우
- 피해교원에게 학교폭력을 은폐한 사실을 기자와 교육청에 말하겠다고 위협한 경우

☒ 모욕·명예훼손(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1) 개념

모욕은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하고, 명예훼손은 공연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체적 진실을 전달하더라도 그것이 상대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특정교원의 외모를 지칭하며 경멸적으로 말하는 경우
- 다른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는 경우

☒ 손괴(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1) 개념

다른 사람의 재물, 문서, 기록 등을 부수거나, 숨기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이물질을 담임교사 차량의 에어컨 배기구에 부어 손상을 입힌 경우
- 담임교체를 요구하며 교실에 있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성범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2호)

1) 개념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 및 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 등을 통하여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인 접촉을 강요하여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상담 시 허리, 종아리, 허벅지 등 일반인의 시각에서 접촉이 꺼려지는 부위를 고의로 접촉하는 경우
-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3호)

1) 개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① 비방할 목적으로 다수에게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판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②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보내는 행위, ③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 역시 구체적 진실을 전달하더라도 그것이 상대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폭행, 학대하고, 이를 따지는 학부모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교사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게시한 경우
- 담임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새벽시간을 포함한 수 일 동안 “죄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교사의) 자손들이 장래 불행할 것이다”라는 등의 저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 십여 차례 보내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 공무집행방해 / 업무방해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호,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1) 개념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하게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 혹은 위계로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방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무 중인 교원에 대해 폭행·협박행위를 하는 경우, 직무/업무라는 법익 또한 침해되었으므로 교육공무원인 교원인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학생을 혼내준다면,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가 관련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교사를 협박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한 경우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조,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1) 개념

성적 언동(말과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교에서 자녀 상담을 하던 학부모가 성적인 비유와 농담을 반복적으로 하여 담임교사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조,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1) 개념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체육교사에게 '수업시간에 야외 체육활동을 하지 말고 자습을 시키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시험 평가에 관하여 교사에게 '시험범위를 줄이라', '시험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냐? 쉽게 내라'라며 반복적으로 요구·간섭하는 경우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1) 개념

교원지위법 및 교육부장관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유형일지라도 학교장이 교권존중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사를 무시하며 학생들에게 교사의 말을 듣지 말라고 종용하는 경우

05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 **가정교육의 중요성 인식하기**

가정교육은 학교교육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정교육이 튼튼하지 못하면 학교교육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성교육이나 생활습관 개선, 관계성 교육 등은 가정교육을 통해 내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교원과 학부모의 관계 재정립하기**

교원과 학부모 간의 신뢰와 존중은 학생 보호와 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교원과 학교를 신뢰할수록 학생의 학습권은 보장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 교원과 학부모는 자녀(학생)를 키우는 새로운 부부와 같습니다. 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협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 학교 교육의 미래는 교원과 학부모의 역할의 연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가 해야 하는 예절교육은 가정에서 하고, 교원은 집단행동 속에서 아이들이 최소한의 규범을 준수할 있도록 학교에서 교육한다면, 서로 의견일치를 보이는 것입니다.
-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모두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녀(학생)를 보호하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